



보도 일시	2023. 2. 2.(목) 11:30	배포 일시	2023. 2. 2.(목) 09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승대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환 (ynghwn@korea.kr)
	국유재산조정과	책임자	과 장	류중재 (044-215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석상훈 (shseok@korea.kr)

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건의 100건 적극 해소 추진 - 최상대 차관, 1차 「국가·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」 개최 -

-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.2.(목), 정부세종청사에서 「국가·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」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였음
-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지난 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(2차관 주재)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·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
-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고,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, 각 지역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

< 제1차 「국가·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」 개요 >

▶ 일시/장소: '23.2.2.(목) 10:00~11:30 (90분) / 정부세종청사

▶ 참석자: 기획재정부 2차관(주재),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*, 4개 기초자치단체** 등

* ①김종한 대구 행정부시장, ②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, ③조봉업 전북 행정부지사,
④전형식 충남 정무부지사, ⑤김성중 제주 행정부지사,
⑥송경주 부산 기초실장, ⑦서남교 울산 기초실장

** ①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, ②김순호 전남 구례군수, ③송재환 경기 부천시시장
④이정곤 경남 양산시시장

□ 금번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「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」(지난해 11월부터 총 8차례)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·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*를 보고하였음 (☞ 참고)

*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과제 검토 결과 91건의 과제 수용 가능 (9건의 타부처 재산 등에 대한 과제도 기재부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수행)

○ 또한,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

- 한편, 오늘 협의회에는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,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등 기초 지자체도 참석하여 각 지역에 소재한 국유재산의 활용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

※ **지자체 제기 100개 건의사항 주요 내용**

- ① (매각)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
⇒ 사례: 부산 동래구는 舊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등 활용
- ② (교환)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
⇒ 사례: 경기 부천시 舊소사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주민 편의시설 활용
- ③ (기타) 국유재산 무상대부·양여 등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용도로 활용
⇒ 사례: 전남 구례군은 현재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 건의

□ 이번 회의에서 최상대 차관은 재정지출만으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며, 재정지출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○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 함으로써,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·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

-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해당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·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

- 정부는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「국가·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」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, 국유재산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국가·지자체간 상설 협의제도 운영할 계획임
- 최상대 차관은 해당 협의회를 국가·지자체간 ‘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,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

참고

「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」 건의 과제 검토 결과

◇ 총 100건의 과제 논의 결과 91건 수용(매각·교환 등) 가능

- 91건 중 매수신청 등이 既 접수된 27건은 모두 수용 가능하며, 매각 절차 등 진행 중('22년 중 8건 대금 완납·매각 완료)
 - 나머지 과제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, 73건 중 64건이 수용 가능(9건은 부처협의 등 추가검토 추진)
- ※ (추가검토 필요 9건) 주로 소관 부처(국토부·법무부 등)와 용도폐지 및 기타 사전 행정절차(도시계획시설 변경 등)에 대한 추가 협의 추진

유형	제출	수용	추가검토 필요
① 매입 등 신청 접수	27건	27건	-
② 매입 등 신청 예정	73건	64건	9건
합계	100건	91건	9건

◇ 과제 유형별 검토결과

- ① (매각) 과제의 대부분인 총 82건(732천㎡, 1,466억원)이 지자체의 국유지 매입 수요로, 80건이 매각 가능(2건 추가 검토 필요)

(사례① : 부산 동래구) 동래구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(3,979㎡, 6,794백만원)

(사례② : 강원 양구군) DMZ 청년창업농 혁신 챌린지 사업(63,214㎡, 434백만원)

- ② (교환) 총 7건(51천㎡, 988억원) 과제에 대해 국·공유지 교환 필요,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검토 및 교환 추진

(사례③ : 경기 부천시) 舊 부천소사경찰서 교환(15,980㎡, 18,700백만원)

(사례④ : 부산광역시) 부산 여성회관 부지 교환(3,887㎡, 27,008백만원)

- ③ (기타) 나머지 11건(341천㎡, 39억원)은 국유재산의 양여, 무상대부 등과 관련한 과제로 4건 수용 가능(7건 추가 검토 필요)

(사례⑤ : 전남 구례군)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(4,199㎡, 1,740백만원)